

쌍용동에서 노래방을 여러 번 옮겨 다니며 측정하고 귀로 확인한 결과를 정리했다. 목청이 터질 듯 부르다 나오는 피곤함, 반주가 자꾸 먹먹하게 들리는 이유, 고음이 거슬리는 방과 편안하게 오래 머물 수 있는 방의 차이를 수치와 감각을 함께 적었다. 업장 상호는 적지 않는다. 방 구조와 세팅이 매달 바뀌기도 하고, 특정 업장을 찍어 말하기보다 무엇을 보고 고르면 실패 확률이 낮아지는지, 어떤 수치가 노래 실력을 살려주는지에 초점을 두는 편이 유익하다.

소리가 좋은 방은 무엇이 다른가

사람 목소리는 대부분 120 Hz에서 4 kHz 사이에 핵심 정보가 몰려 있다. 반주는 저역의 킁과 베이스, 중역의 건반과 기타, 상단의 심벌과 에어감으로 채워진다. 노래방에서 좋은 음향은 이 둘이 서로를 덮지 않고, 마이크가 과도하게 울거나 피드백을 일으키지 않으며, 작은 소리라도 가사 전달력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측정 기준을 너무 기술적으로 가져가면 현장에서 쓸모가 떨어진다. 대신 다음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체감은 확 달라진다. 방 크기 대비 적절한 잔향 시간, 63 Hz에서 125 Hz 대역의 뽕뽕거림 억제, 2 kHz 전후의 과도한 치찰 억제, 마이크와 스피커 게인 배분의 균형, 그리고 반주와 보컬 버스를 분리한 믹스다.

쌍용동 일대는 오피스텔과 상가가 혼재하고, 건물마다 층고와 벽체 재질이 다르다. 같은 기기를 써도 방음 설계와 실내 마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대부분의 차이는 목재 합판과 유리 비율, 천장 내 흡음재 충전, 도어 실링, 그리고 저역을 다스리는 베이스 트랩 유무에서 생긴다. 그중 저역 처리의 차이가 가격 대비 체감에 가장 크게 작용한다.

실측 방법과 장비

측정은 영업 방해가 없도록 한가한 시간대에 양해를 구해 진행했다. 소리의 질은 한 번 박수 치고 울림 듣는 수준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RT60, 주파수 응답, 명료도, 잡음 바닥을 함께 본다.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측정 마이크: 캘리브레이션된 옴니 패턴의 콘덴서 마이크, 48 V 팬텀 파워 사용
- 인터페이스: 저잡음 프리앰프 탑재 2채널 모델
- 소프트웨어: 룸 어쿠스틱 측정용 툴과 RTA, 펄스 응답 기반 RT 계산
- 보조 장비: 클래스 2 사운드 레벨 미터, 삼각대, 핑크노이즈 소스 파일

마이크 위치는 객석 중앙 귀 높이가 기본이다. 노래방은 보통 두세 자리 배치가 비슷하므로, 소파 기준 가운데와 벽 모서리 30 cm 앞, 방 입구 쪽 한 지점, 총 세 포인트에서 본다. 반주 스피커는 80 dB SPL 기준으로 맞추고, 마이크는 손으로 쥘 상태와 스탠드에 물렸을 때 둘 다 체크한다. 마이크 게인은 하울링이 나기 직전에서 6 dB 여유를 둔다. 이 조건에서 얻은 값은 노래할 때의 실제 체감과 상당히 일치한다.

쌍용동 가라오케 방의 전형적인 수치 범위

쌍용동 가라오케 업장들은 지상 2층 이상과 지하층이 섞여 있다. 지하는 대체로 저역이 쌓이기 쉽고, 지상은 외부 소음 차단이 조금 약한 대신 저역이 단단해지는 편이다. 다음 수치 범위는 쌍용동에서 10여 개 방을 살펴봤을 때 반복적으로 관찰된 평균적인 경향이다.

잔향 시간 RT60은 중역 기준 0.25초에서 0.45초 사이가 가장 노래하기 편했다. 0.5초를 넘기면 반주와 보컬의 경계가 흐려지고, 템포 빠른 곡에서 발음이 뭉개진다. 반대로 0.2초 이하로 마르면 마이크 에코를 올릴수록 금속성 잔향이 두드러져 부자연스럽다.

주파수 응답은 63 Hz와 125 Hz 대역이 6 dB 이상 솟아있는 방이 여럿 있었다. 특히 방 길이가 3.5 m에서 4 m 부근인 경우 70 Hz 전후의 정재파가 도드라졌다. 이런 방에서는 남성 저음이 부풀고, 킁이 둔탁하게 울려 템포가 느리게 느껴진다. 250 Hz에서 500 Hz 구간이 움푹 파인 방도 드물지 않은데, 벽면 합판과 얇은 스펀지 계열 흡음재가 중저역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다. 이 구간이 빠지면 목소리에 살이 없어지고, 여성 보컬의 몸통이 사라져 듣는 이가 피곤해진다.

(7/21/21)
천안의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천안걸이 알려주는
진 천안슬집 TOP 3**



2 kHz에서 4 kHz 사이 피크가 3 dB 이상 솟은 방은 치찰음과 피드백 가능성이 같이 오른다. 작은 볼륨에서도 시끄럽게 느껴지고, 마이크를 입에 가깝게 대면 하울링이 빠르게 반응한다. 이 대역은 마이크의 지향성, 스피커 각도, 반사면 유무에 민감하다.

배경 소음은 에어컨과 환풍기, 복도 소음 유입에 좌우된다. 방 안이 35 dBA 이하로 떨어지는 곳은 드물었고, 38 dBA에서 45 dBA 사이가 많았다. 40 dBA를 넘기면 잔잔한 곡에서 노이즈가 거슬리기 시작한다. 도어 하단 실링이 제대로 붙은 방은 [쌍용동 가라오케](#) 복도 대화 소리 유입이 5 dB 이상 줄어든다.

마이크, 스피커, 에코의 삼각관계

쌍용동 가라오케 업장에서 많이 쓰는 마이크는 다이내믹 타입이 대다수다. 콘덴서 마이크를 일부 쓴 곳도 있었지만 하울링 관리가 까다로워 그 수가 적다. 다이내믹 마이크의 장점은 견고함과 주변 소음 차단, 단점은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해상도는 결국 스피커와 공간이 보완한다. 마이크 감도는 보통 2 mV/Pa에서 3 mV/Pa 수준으로 느껴졌고, 일부 고감도 제품은 계인을 낮춰도 피드백이 쉽게 돈다. 그런 방에서는 스피커 각도를 조금만 바꿔도 하울링 임계점이 2 dB 이상 올라간다.

스피커는 10인치 혹은 12인치 2웨이 구성이 일반적이다. 트위터의 확산각과 방 크기가 맞지 않으면 고역 에너지가 특정 벽에만 반사되어 상단이 날카로워진다. 트위터가 귀를 바로 겨냥하는 세팅은 짧은 시간에는 시원하게 들리지만, 30분을 넘기면 피로가 확 온다. 트위터를 5도에서 10도 정도 바깥으로 벌리고, 좌우 대칭을 맞추면 3 kHz 전후가 온순해진다.

에코는 기기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본질은 두 가지다. 딜레이 계열의 공간감과 리버브 계열의 울림. 좋은 에코는 원보컬의 자음 선명도를 해치지 않으며, 끝음을 미세하게 끌어준다. 마이크 에코가 12시 방향을 넘어가면 가사 전달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반주 잔향과 마이크 잔향을 분리 조절할 수 있는 방은 드물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면 보컬 에코를 한 칸 더, 반주 에코는 한 칸 덜 주면 선명도가 좋아진다.

쌍용동의 건물 구조가 만드는 특성

쌍용동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다. 신축 상가는 천장고가 2.7 m 이상인 경우가 많고,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석고보드와 흡음재를 이중으로 대는 공법을 보았다. 이런 곳은 저역의 잔향이 0.4초 이내로 잘 잡히는 편이다. 구축 상가는 벽체가 얇거나, 유리 비율이 높은 면이 많아 2 kHz 이상의 반사가 살아있다. 유리 반사는 소리를 번쩍이게 만들지만 노래에는 독이 되기 쉽다. 커튼이나 천장 구석에 설치된 흡음 패널만으로는 유리면 반사를 충분히 꺾지 못한다. 유리 면 앞에 10 cm 두께의 천 흡음 배너를 세우거나, 탁자 높이의 소프트 패널을 추가하면 2 kHz 대역이 2 dB 가까이 가라앉는다.

지하층은 배관 소음이 문제다. 환풍기 저역이 63 Hz와 125 Hz 구간에 상시 깔리면, 반주 저역과 합쳐서 거대한 베이스 덩어리처럼 들린다. 이때는 반주 저역을 깎기보다, 마이크 하이패스 필터를 100 Hz 근처에 켜는 편이 실전에서 유리하다. 보컬 정보는 100 Hz 아래에 거의 없고, 남성 가수조차 125 Hz가 과하면 발음이 뿌옇게 된다.

쌍용동에서 실제로 좋았던 방의 공통점

반주 볼륨을 78 dB SPL 근처에 두고, 마이크를 2 dB 아래에서 들어 올려도 피드백이 나지 않는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의 공통점은 소파 뒤 벽에 10 cm 이상 두께의 흡음재와 공기층이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 30 cm 정육면체에 가까운 흡음 블록이 자리했다. 바닥은 카펫 혹은 러그로 약 60% 이상을 덮고 있었다. 무엇보다 스피커가 벽에 바짝 붙지 않고 30 cm 이상 띄워져 있어, 저역 포트가 벽면에서 공진하지 않았다.

보컬 톤이 자연스럽게 들린 방은 500 Hz 근처의 딥이 없고, 2.5 kHz 피크가 1 dB 이내로 눌러 있었다. 고음이 시원한데도 귀가 아프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거다. 방이 건조한 대신, 마이크 리버브를 플레이트 계열로 얇게 얹어 길이가 1.2초 안팎으로 맞춘 곳도 노래가 참 편했다.

두정동, 불당동, 성정동, 신부동과의 비교

천안 가라오케를 동네별로 가보면 인상 차이가 있다. 두정동 가라오케는 신축 오피스 빌딩 내 입점이 많아, 기본 방음 성능이 준수하다. 다만 유리 파티션이 많아서 고역 반사가 살아 있고, 음악은 화사하게 들리지만 장시간 노래하면 얼굴 근육이 먼저 지친다. 이럴 때는 마이크 에코의 하이를 낮추거나, 반주 이큐에서 4 kHz를 1 dB만 줄여도 체감이 확 달라진다.

불당동 가라오케는 대형 체인 위주라 기기 상태가 일정한 편이고, 관리가 잘 된다. 대신 손님 회전이 빠른 만큼 볼륨 로깅이 거칠 때가 있다. 방마다 레벨이 들쭉날쭉하면, 처음 5분은 레벨 밸런스를 잡는 데 써야 한다. 장점은 지하층 배관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대형 건물의 설비 덕분에 배경 소음이 안정적이다.

성정동 가라오케는 구축 상가가 많아 방 크기가 제각각이다. 작은 방은 2.5 m 수준이어서, 벽과의 근접 반사가 바로 귀로 돌아온다. 듀엣으로 마이크 두 개를 동시에 켜면 중역이 부풀어 엄청 시끄러워진다. 이럴 때는 마이크 게인을 1 칸씩 낮추고 반주를 1 칸 올려서 상대 레벨을 갈라주면 보컬이 또렷해진다. 커버 곡 녹음이 목적이라면 큰 방을 요청하는 것이 낫다.

신부동 가라오케는 상권 특성상 젊은 손님이 많아 최신 기기 업데이트가 빠른 편이다. 최신 기기는 보컬 이펙트 프리셋이 세련됐고, 반주와 보컬의 버스 분리가 편하다. 다만 프리셋에 의존해 에코가 과한 세팅이 기본값인 방들도 있어, 청량한 곡에서 가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프리셋을 노멀로 바꾸고, 에코 타임을 짧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명료도가 오른다.

쌍용동 가라오케는 이들 동네의 중간값에 가깝다. 방음 설계가 잘 된 방도 있고, 구축 특유의 저역 부밍이 살아 있는 방도 있다. 평균적으로는 잔향이 과하지 않고, 중저역이 살짝 많은 쪽으로 기운 방이 많다. 발라드에는 유리하고, EDM이나 힙합의 킥이 과해지기 쉬우니 반주 저역을 조금 깎아 쓰는 것이 좋다.

직접 체감으로 좋은 방을 고르는 간단한 절차

짧은 시간에 방 컨디션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다. 계산기 없이, 휴대폰과 귀만 있으면 된다.

- 휴대폰으로 핑크노이즈나 화이트노이즈 앱을 켜고 10초만 들어본다. 귀가 찌릿하거나 특정 대역이 유난히 튀면 고역 피크가 있다.
- 박수를 한 번 치고 2초간 귀를 기울인다. 메아리처럼 한 번 더 들리면 평행면 반사가 강하다. 마이크 에코를 낮춰야 한다.
- 말소리로 시웃, 지웃 발음을 또렷하게 뱉어 본다. 지나치게 날이면 2 kHz 이상이 솟은 상태다. 반주 하이를 한 칸 낮춘다.
- 코인 100원을 탁자에 굴러 본다. 딸깍거림이 탁 하고 멎으면 바닥 흡음이 괜찮다. 철컹철컹 오래 울리면 고역 반사가 많다.
- 복도 문을 열었다 닫고, 밖 대화가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한다. 문틈 실링이 약하면 배경 소음이 높다. 잔잔한 곡에서 불리하다.

이 다섯 가지만 체크하고, 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옮겨 달라고 요청해도 된다. 업장 입장에서도 서로 좋다. 피드백과 민원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수 입장에서 세팅 팁

목소리가 얇거나 고음에서 갈라지는 사람은 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는 마이크를 입에서 5 cm 정도 떼고, 게인을 한 칸 올린다. 가까이 대는 대신 게인으로 보상하면 근접효과가 줄어 중저역이 정리된다. 반주 저역을 1 dB만 낮추고, 보컬 에코를 0.1초 더 길게 주면 얇은 목소리가 덜 쏜다.

저음이 과한 사람은 마이크 하이패스 필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장비에 버튼이 없다면, 반주 저역을 깎기보다 보컬 에코의 로우컷을 120 Hz로 올린다. 에코 저역이 깔리면 곡 전체가 탁해진다.

치찰음이 강한 사람은 6 kHz 주변이 올라가 있다. 마이크를 입보다 약간 아래, 턱 선에 두고 노래해 보자. 각도만 바뀌어도 치찰이 줄어든다. 반주 고역을 손대기 전에, 보컬 프리셋에서 디에서 기능이 있다면 값을 1단계만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업주 관점의 저비용 개선 아이디어

방마다 수십만 원만 투자해도 체감 차이가 난다. 벽 전체를 공사하는 대신, 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만 겨냥한다. 소파 뒤 벽에 10 cm 두께의 흡음 패널을 1 m 간격으로 두 장만 붙여도 250 Hz에서 500 Hz 사이의 딥과 피크가 완만해진다. 천장과 벽이 만나는 4개 모서리에 삼각형 베이스 트랩을 붙이면 70 Hz에서 100 Hz의 뽕뽕거림이 2 dB 이상 낮아진다. 장식적인 패브릭을 쓰되, 단순한 얇은 천은 효과가 거의 없다. 내부에 고밀도 글라스울이나 폼을 채워야 한다.

스피커는 벽에서 30 cm 이상 띄우고, 트위터가 귀를 정조준하지 않게 살짝 바깥으로 벌린다. 앰프 게인과 믹서 마스터를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마스터가 너무 낮고 채널 게인이 크면, 노이즈가 올라온다. 반대로 마스터가 너무 높고 채널 게인이 낮으면, 피드백 한계가 낮아진다. 경험상 마스터를 0 dB 기준으로, 채널 게인을 중간값에서 시작해 하울링 직전에서 한 칸 내리는 방식이 안정적이었다.

도어 하단에는 드롭 실 장착이 훌륭한 가성비 개선이다. 5만 원 내외로 배경 소음이 체감상 3 dB 이상 줄어든다. 환풍기 진동이 심하면, 고무 방진 패드를 추가해 저역 전달을 끊어준다.

곡 선택과 음향의 상호작용

쌍용동 방의 평균적 중저역 성향을 고려하면, 발라드나 R&B는 큰 손대지 않아도 어울리는 편이다. 반면 트랩 비트나 하드한 EDM은 킥과 808이 두꺼워져 보컬 공간을 침범한다. 그럴 때는 반주에서 63 Hz와 125 Hz를 한 칸씩 낮추고, 2 kHz를 0.5 dB만 올리면 킥은 작아지지 않으면서도 가사 전달이 살아난다. 락 발라드 같은 곡에서는 3 kHz가 너무 오르면 심벌이 귀를 찌른다. 고역이 시끄러울수록, 마이크 에코의 하이 댐핑을 높여서 잔향 속 고역을 빨리 감쇠시키는 편이 낫다.

시간대와 컨디션, 그리고 귀의 피로

늦은 밤에는 복도 소음이 줄어들고 동시에 방 안에서의 상대 음량이 올라간다.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더 큰 소리를 낸다. 마이크로폰 피드백 한계도 그만큼 가까워진다. 귀가 피곤해질수록 고역에 더 민감해진다. 세션을 2 시간 이상 끌 계획이라면 초반에 고역을 조금 눌러 두고, 1시간 지나서 다시 들어 올리는 편이 체력 관리에 좋다. [천안 가라오케](#)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곡과 곡 사이에 30초 정도의 침묵을 갖는 것만으로도 귀의 회복이 빠르다.

친구 모임과 녹음, 목적에 따른 방 선택

친구들과 신나게 부르는 모임이라면 공간의 명료도보다도 피드백 내성, 그리고 넓이가 중요하다. 사람이 많을수록 저역 흡음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고역 반사도 옷감에 흡수된다. 모임은 넓은 방이 오히려 소리를 편하게 만든다. 반대로 녹음이 목적이면, 작은 방이라도 조용하고 잔향이 적은 곳을 찾는 편이 유리하다. 반주 음량을 낮게 세팅하고, 마이크 에코는 드라이하게 두고 후처리로 공간감을 더하는 방식이 결과물이 깨끗하다.

길게 부르기 좋은 쌍용동의 조건

쌍용동은 교통이 편하고, 주차가 수월한 건물도 많아 장시간 머물기 좋다. 장시간 노래는 음향보다도 체력 관리가 중요하지만, 음향이 체력을 갉아먹는 경우가 많다. 고역이 번쩍이는 방, 저역이 뽕뽕 울리는 방, 배경 소음이 높은 방은 피로를 빠르게 올린다. 앞서 말한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피로의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업주 입장에서도 회전율을 높이려면, 손님이 30분 이상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낫다. 피드백이 적고, 가사 전달이 선명하며, 소리를 덜 질러도 무대감이 살아나는 방, 이것이 회수보다 재방문을 만든다.

쌍용동에서 건졌던 작은 디테일들

마이크 케이블 상태가 미세한 잡음을 만든다. 접점이 헐거우면 손을 움직일 때 드르륵 노이즈가 탄다. 업장 중 몇 곳은 케이블 슬리브를 교체해 이런 잡음을 줄였다. 마이크 팁의 윈드스크린은 위생만이 아니라 소리에도 관여한다. 두꺼운 스폰지는 치찰을 줄이지만 고역이 약간 감쇄된다. 보컬이 탁해지면 얇은 타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스피커 앞 탁자 위에 쌓인 병과 컵도 음향을 만든다. 유리는 반사체다. 스피커 전면 1m 안에 병이 영키면 고역 산란이 일어나 미묘하게 소리가 지저분해진다. 깔끔하게 치운 방이 더 잘 들린다는 단순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어디서 부를까, 최종 선택의 기준

쌍용동 가라오케를 두세 곳 방문해 보면 취향이 분명해진다. 한 곳은 저역이 탄탄하고 발라드에 어울리고, 다른 [신부동 가라오케](#) 곳은 상단이 화사해 팝이나 댄스 곡이 빛난다. 키워드로 묶어 말하자면, 천안 가라오케 전반의 평균에 대비해 쌍용동은 중저역이 편안하고 하울링 마진이 넉넉한 방이 상대적으로 많다. 불당동은 장비 업데이트가 빠르고, 두정동은 기본기가 튼튼하며, 성정동은 방 편차가 큰 대신 골라잡는 재미가 있다. 신부동은 이펙트가 세련됐고, 세팅만 가볍게 손보면 녹음도 무난하다.

결국 좋은 음향은 장비 가격표보다 세팅과 공간에서 나온다. 손님 입장에서는 방을 고르는 눈이 실력이고, 업주 입장에서는 공간을 다듬는 손이 영업력이다.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 보고, 수치로 확인하면, 쌍용동 어디에서든 자신의 목소리에 맞는 방을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건 노래의 기분

측정 수치는 길을 비춰줄 뿐, 노래의 기분을 대신하진 않는다. 좋은 방에서 잘 세팅된 마이크로 본인의 목소리를 만나는 경험은 오래간다. 고음이 무리 없이 올라가고, 낮은 음이 흐릿해지지 않으며, 가사가 또렷하게 객석으로 전달되는 순간, 사람들은 다시 그 방을 찾는다. 귀와 몸이 편하고, 대화가 들리고, 음악이 음악답게 들리면 된다. 쌍용동의 밤은 길다. 귀가 시원하고 마음이 가벼운 방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면, 모임도, 혼노도, 연습도 모두 만족스럽다.

덧붙임, 자가 점검용 간단 조정 순서

노래 시작 1분 안에 할 수 있는 조정 순서다. 과하게 만지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바꿔 소리를 들어 본다.

- 반주를 기준으로 78 dB 정도까지 올리고, 마이크는 반주보다 살짝 낮게 맞춘다. 목을 덜 쓰게 된다.
- 마이크 에코를 노멀 값에서 한 칸 내리고, 노래해 보며 반주와의 간격을 확인한다.
- 반주 저역이 뽕뽕하면 63 Hz와 125 Hz 중 하나만 한 칸 줄인다. 둘 다 손대면 빈약해진다.
- 하울링 기미가 보이면 스피커를 살짝 바깥으로 돌리거나 마이크를 턱선 아래로 내린다.
- 여성 보컬로 치찰이 심하면 4 kHz에서 6 kHz를 0.5 dB만 줄인다. 과하면 답답해진다.

좋은 방은 작은 손질에도 반응이 정직하다. 조정이 먹히지 않으면, 방을 바꾸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다.